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금융허브 도약 목표

2015년 7월 13일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7월 6일,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국제 금융 센터 설립 총력

[참고자료]

LEADERSHIP, derlimited, DAILY TRUST, FSS2020

나이지리아가 금융구조 개혁정책인 FSS 2020(Financial System Strategy 2020)을 통해 아프리카의 금융 허브로 도약할 방침이다.

나이지리아, 금융 개혁 필요성 대두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수차례 경제개혁 정책을 펼친바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금융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관련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6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과 주요 금융기관들이 협력해 FSS 2020을 처음으로 구상했다. 그리고 2008년 하반기에 우마르 야르아두아(Umar Yar' Adua) 대통령이 FSS 2020 추진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FSS 2020 프로그램의 각기 다른 하위 분과에 8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FSS 2020을 통해 아프리카 금융 허브로

FSS 2020은 은행, 보험, 연금, 자본 관련 분야를 개혁하는 개혁 프로그램으로, 금융 서비스 기술 발전, 금융 산업 통합 인프라 구축, 정유 및 가스산업 개발을 통한 경제 견인, 해외 시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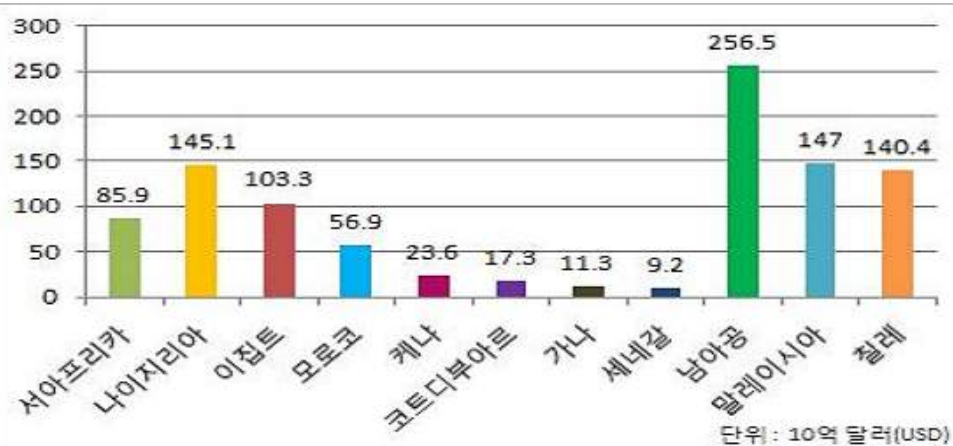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의 진출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나이지리아 연방은행은 은행을 시작으로 전체 금융산업을 개혁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FSS 2020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신흥시장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2020년까지 아프리카의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올루와토잉 조코세누미(Oluwatoyin Josensumi) FSS 2020 프로그램 운영 총괄매니저는 “2005년에 총 750개에 달하는 FSS 2020 프로젝트가 착수되었으며 현재까지 30%가 완료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제 금융센터를 나이지리아에 설립한다는 법안이 상원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자칫 아프리카 국제 금융센터가 나이지리아 내부에 국한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경제의 중심,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정부가 2006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GDP는 다른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GDP 총합 보다 높으며, 말레이시아, 칠레의 GDP와 비슷하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세계에서는 26위의 시장이다. 골드만삭스는 오는 2025년까지 나이지리아가 11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이지리아 현지 매체인 데일리 트러스트(Daily Trust)에 따르면, 나이지리아가 FSS 2020을 통해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면, 과거 두바이가 이룬 눈부신 성과를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아프리카 국가들의 GDP 비교 그래프]



출처: 나이지리아 정부 FSS 2020 홈페이지

- 콘텐츠 자문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이머릭스(EMERiCs) 상의 콘텐츠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